

7장 벤야민과 역사철학

◆1교시: 벤야민과 역사철학(1)

▲ 벤야민의 역사관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 푸리에, 블랑키

사실은 이게 그 역사 철학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끝났어야 하는데 좀 꼼꼼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해야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설명도 힘들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끝래의 이미지를 갖고 벤야민이 본인의 역사 철학자로서의 자세 굉장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가 응시하고 있는 현대적 상황 그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에서 얘기되었던 그런 부분이 벤야민이 소위 역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큰 두 개의 축으로 삼고 있는 이론가가 한 사람은 샤를 푸리에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블랑키라고 있습니다.

푸리에에 소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책으로 번역되어 오고 있는데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굉장히 몽상주의자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세계를 은유하면서 그 세계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전혀 우리가 마치 동화적인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를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구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연과 역사라고 하는 두 개의 대립 항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행해 놓은 그런 인간사라고 한다면 자연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사가 있죠.

자연사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러한 그 운동을 얘기한다면 바로 역사는, 역사와 자연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뿌리 깊은 그런 문명의 딜레마죠. 다시 말하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 화해 상태로서 이뤄져 내려 왔다면 역사와 자연 간의 아무런 갈등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서구의 어떤 그런 자연관에 의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말하자면 개척한다는 이름하에 지배하거나 아니면 피폐화 하는 아니면 약탈하는 그러한 관계로 바로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적대관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끝에서 바로 역사의 모순이 근본적으로는 이 자연과 그 자연을 개척하는 그런 그 문명 사이에서 개재될 수밖에 없었던 모순이 재현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의 정신사가 대체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동양에서는 사실 자연관, 서구사람들은 그거를 필연적인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동양적 자연관은 좀 다르죠. 그죠? 동양적 자연관은 역사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데 있다고 보는... 이 얘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상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 그런 자연관이 다른 아닌 서구 그 자연관에 가장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언어철학 부분 할 때 구약의 창세기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바로 이 창조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타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쫓겨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다시 말하자면 양가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나는 대단히 거기서 죄라는 것이 태어나고, 죄를 짓게 되는 하나의 그런 말하자면 문제적인 그런 행위로 보는 반면, 또 한 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필연적이다 이겁니다.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아직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개체로서 정신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그 소위 계몽적 그런 주체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자연을 떠나야 하는데, 이 떠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한편으로는 ‘필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죄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이런 이중적 딜레마가 자연과 맺고 있는 이중적 딜레마가 해소되는 것이 기독교에서 어디에 나타 나냐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원이 되서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살기 위해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폭력이 파라다이스에 가게 되면 바로 그 다시 화해되는 상태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죠.

기독교가, 그런 구원론이고, 죄 그리고 구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어떤 내러티브에 틀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서양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그대로 다시 얘기하고 있는 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명의 어떤 가장 큰 딜레마가 이 자연과의 갈등관계에 있다면 바로 이런 푸리에 같은 사람들은 다른 아닌 이 자연과 그 갈등관계가 아니라 화해 관계에 들어가고, 구성되어있는 어떤 세계를 나아가야 될 어떤 유토피아의 상황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그 푸리에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다’라고 하는 유토피아의 개념이 사실은 그런 그 푸리에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계몽이 막 시작되는 시대였었고 그리고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그 이성주의와 물질주의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그리고 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인간에 대한 자기신뢰가 극대화 되고 있는 시기에 바로 그러한 그 푸리에적 유토피아관은 굉장히 ‘몽상이다’라는 이유로 많이 비판을 받았죠.

우스꽝스러운 그런 세계상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벤야민은 그러나 그걸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한 편에서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 푸리에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념을 한편으론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랑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블랑키는 바로 그 당대의 직업혁명가로, 스스로 자기의 직업을 자기의 그런 명함을 ‘나는 직업혁명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블랑키가 그 가

지고 있던 혁명론을 혁명론이라 하는 것을 바로 이 벤야민은 다시 자기 이론에 한 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블랑키 혁명론이라 하는 것은 벤야민도 바로 블랑키로부터 차용을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혁명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대단히 폭력 론하고도 가깝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블랑키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증오와 그리고 희생정신이다... 혁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증오와 희생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바로 그 혁명에 가장 중요한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블랑키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말이 좋아 저게 희생정신이라 그러지 한 마디로 보면 이 자폭에 가까운 그런 자기 포기적인 어떤 에너지, 우리 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자살 폭탄 같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희생을 바로 요구했던 그런 블랑키라고 하는 혁명가가, 혁명 이론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단호하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여러 이론에 의해서 특히 그 소위 사회 민주주의 당파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앞으로 연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블랑키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혁명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미움을, 증오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그 에너지를 통째가지고 자기를 과감하게 투척할 수 있는 이런 희생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그 생각을 했고, 그 블랑키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보타주나 아니면 여러 그룹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자본가들과의 싸움을 지도하고 그랬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편으로 이념상으로는 그 푸리에의 그런 그 신세계관을 차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천적으로는 블랑키의 혁명론을 차용하면서 이 두 개를 이제 그 벤야민은 자기 나름대로 이 혁명의 중요한 두 조건으로 이제 삼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12장까지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벤야민의 혁명론과 시간

그래서 이제 13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혁명론을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다시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3장, 13장을 한 번 읽어보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진보의 개념, 진보의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소위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 개념과 그리고 그 현대성이 가지고 있는 진보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벤야민의 논리에 의하면 사실은 그런 현대성에 의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시간이 앞으로 흘러 나가고 한 마디로 보게 되면 앞으로 전진 할 뿐이지 진정한 진보는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 벤야민의 시선으로 볼 때에 소위 현대성의 어떤 그런 시간 흐름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그 제자리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진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보라고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현대성, 현대성의 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진보의 다른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첫 줄에 보게 되면, “한층 더 현실에 근거한 진보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교조적 요구를 지닌 진보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보다 한층 더 현실에 근거한 진보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진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한 층 더 현실에 근거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독일어에서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는 영어에서 얘기하는 reality 예요. 그러나 독일어 특유의 다른 게 있습니다. 또 다른 현실이라고 하는. 이게 비아클리카이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어 구어에서, ‘야, 내가 어저께 로또 맞았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영어에서는 ‘Is that true?’이렇게 물어보죠. true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비아클리카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어저께 로또 맞았다 그러면 ‘비아클리?’ 하고 놀라는 듯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를 때 reality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심층적인 내용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없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아클리카이트 또는 truth라고 하게 되면, 그게 ‘진짜’라고 하는 말이죠. 진짜. 그런 의미에서 구별되는데 여기서 바로 벤야민이 얘기 하면서 말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한 진보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뭐냐면 진짜truth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조주의 적인 진보는 틀려먹었다 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은 reality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조주의 적인 진보 개념은 순응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에 순응 적으로 바로 그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면,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진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벌어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시츄에이션이나 이런 것에 순응이 아니라, 순응이 아니라 진짜 현실, 마땅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true reality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미 그 저기모야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번역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조적 요구를 지닌 진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소위 인류의 지금까지 내려 온 인류의 역사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질적이고, 늘 똑같고 그래서 공허한 아무 사건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관통하는 역사적 발전과정... 여기서 발전이란 것도 말하자면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에 지나지 않았다” 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진보냐 하는 것이죠, 벤야민이 볼 때에. 그러한 그 소위 벤야민이 볼 때에 지금까지 인간이 그 형성해 내려 온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진보인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진보인 적이 없었고,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순응해 왔던 그러한 제자리걸음, 그런 의미에서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야민이 시간을 얘기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간은 흐르고 있다. 자연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자연시간)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역사시간인데요. 이게 진정 역사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벤야민이 볼 때에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텅 빈 시간이 그냥 흘렀을 뿐이다, 이거거든요. 텅 빈 시간.

벤야민의 얘기에 의해서 역사, 진정한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거야말로 진짜 진보인데, 이 진보는 소위 자연적 시간 위에 인간의 시간이 생겨난 이래로, 역사의 시간이 생겨난 이래로 한 번도 있어본 적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을 관통하는 그저 자연의 시간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의 바탕은 당연히 이러한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 벤야민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

그렇게 1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장에 들어가면 바로 새로운 진보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14장에 들어가게 되면, 역사는 어떤 구성이나 구조물의 대상인데, 이거 구조물이란 말은 원문에 없는데 이렇게 붙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construction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history라고 하는 것은 object of construction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이예요. 역사라고 하는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온 행해온 어떤 여러 가지 행동에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런 시간적 흐름의 사건들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지금까지 내려 온, 지금까지 해 온 어떤 일들을 어떻게 construction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교시: 벤야민과 역사철학(2)

▲ 벤야민과 로베스피에르 - the time of now

이건 역사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즘은 하나의 환상에 젖어있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바로 지난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수집해서 있는 그대로 재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자료를 그렇게 중요시하지요. 역사는 완전히 자료와의 싸움이죠. 어느 그런 학문 분야보다도.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있어왔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념이 바로 그 역사 서술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벤야민이 얘기할 때, 역사는 있는 그대로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새롭게 construction하는 거다. 구성하는 거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reconstruction하는 거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술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지금 이 시점에서 reconstruction 한다 그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말이었었어요.

‘구성의 대상이다.’ 근데 이 구성물이 설 장소, 이 역사가 바로 이제 그 쓰여 지는 장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현재시간Jetztzeit에 의해서-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 충만 된 시간이다. 그 독일어 Jetztzeit인데, 'the time of now' 아니면 뭐 줄여서 'the now'. 지금 여기,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시간에 의해서 충만 된 시간이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 로베스피에르 아시죠? 불란서 혁명을 주도했던, 그 나중에 스스로 단두대에 올라갔던 그 사람이죠. -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에게는 고대 로마는 현재시간에 의해서 충전되어진 과거였다. 어려운 말 이예요.

프랑스 혁명은 스스로를 다시 태어난 로마로 이해했다. 마지막에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대미문의 무슨 새로운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옛 로마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이해했다, 라고 얘기해요. 프랑스 혁명은 고대 로마를 마치 유행이 지나간 의상을 바로 그 여기서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더 정확히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인용한다는 말을 써요, 인용한다. 그래서 바로 그 지나간 의상을 그 유행이 모두가 새롭게 인용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인용한 사건이다.

유행은 바로 ‘모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벤야민에게 그 파사주 아르발트(03:15)에 가면 ‘모두’가 굉장히 중요해 지는데요. 여기서도 이미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라고 하는 것은,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낚새채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모두라고 하는 것은 낚은 것 속에서 무엇이 지금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아주 예민하게 동물적 감각으로 체취해내는 감각을 지닌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빠졌지만, 유행은 과거 속에서 그 무엇이 지금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낚새채는 -그것이 아무리 지나간 과거의 덩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과거를 향해서, 그것은 ‘모두’입니다. 모두는 말하자면 과거를 향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바로 그 'pounce of tiger'다. 영어의 pounce라고 하는 말인데, 짐승들이, 특히 고양이 예를 들어 고양이 같은 거가 쥐를 잡는다 치면, 뛰려고 짹 움츠리는 그런 상태 있죠? 튀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바로 그거를 pounce라는 말로 써가지고 독일어에서는 스푸눈라고 하는데 그걸 바꿔서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호랑이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채취하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호랑이의 도약이다’. 모두는,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향해서 바로 현재의 액츄얼리티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향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웅크리고 있는 듯한,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그 호랑이의 그런 자세를 지니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모두의 이 도약은 지배계급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형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자면 모두가 이런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낡은 것, 아무도 새로운 것으로 보지 않는, 이미 폐기된 옛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 속에서 그야말로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지금 당장 빛날 수 있고 지금 당장 새로워 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채취해 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도약력과 그리고 그 후각이나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후각과 시각과 놀라운 도약력이 다만 뭘니까? 바로 현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벤야민이 보고 있는 ‘모두’에 대한 이중시각이에요.

모두는 감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감각이나 시각이나 그런 놀라운 그런 낡은 것 속에서 새로움을 채취해 내는 능력이 잘못 쓰이고 있다. 즉 시장에서 소비를 위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또 재생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벤야민의 그런 그 도시 현상에 대한 시선은 다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positive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negative 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을 바로 채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그 그게 바로 병증법적 시선이고, 그리고 파리를 응시하고 있는 그런 시선입니다. 파리의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의 시선이 이래야 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자유로운 하늘에서 펼쳐질 바로 모두와 동일한 도약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르크스가 혁명으로 파악한 변증법적 도약이다, 이거죠. 바로 모두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변증법적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건이 뭐냐 하면 지금 ‘the time of now’라고 하는 겁니다. 벤야민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 하려고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로 과거를 응시하는 시선이고, 그리고 그 과거를 응시하는 그 현재 시점이 역사적 서술의 순간이 되려면 바로 특별한 시간의식이 필요하다, 그 시간의식이 뭐냐 하면 바로

the time of now다.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현재가 아니라 특별한 말로써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어떤 밑받침 아래서 바로 과거를 응시하고 과거로 뛰어들고 과거 속에서 뭔가를 채취해 나오는 이런 능력이 발현되는 것인데 그 역사가 역사를 construction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새롭게 재구성 하는데, 재구성하고 있는 바로 특별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벤야민은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해서 전혀 새로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으로 설정되지 않는 또 다른 시간의 어떤 그런 지점을 개념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time of now라는 거죠. 이 time of now라고 하는 것을 또 예를 들어서 로베스피에르에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 즉 time of now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서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는 순간인데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혁명의 그런 순간으로 바꾸는 바로 혁명의 시간이기도 한데, 바로 이 혁명의 시간이기도한 이것을 바로 로베스피에르의 그런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아닌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고, 바로 그런 프랑스 혁명이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바로 현재시간이고 the time of now이고 그리고 혁명의 시간인가 하는 것은 다른 아닌, 그 프랑스 혁명과 고대 로마와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에게는 바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고대 로마를 재현하는 것, 재현이라는 말. 아니면 인용한다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의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프랑스 혁명은 고대 로마를 마치 유행이 지나간 의상을 새롭게 인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용했다 이 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time of now라고 하는 것을 즉 혁명의 시간인데, 이 시간은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의 지금 기술하기도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의 특별한 시간성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바로 이 과거 사실, 이 과거 사실, 과거라고 하는 것 속에서 바로 어떤 새로운 것을, 전혀 새로운 것을 catch해가지고 바로 끌고 내려오는 그런 것이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는 말하자면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벤야민이 얘기하려고 있는 것은 역사가가 지금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시간이, 시간대가 현재라고 한다면 이 현재와 역사를 기술하는,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 대상인 이 과거와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요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관념이 뭐냐면 actuality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성이다. 무슨 말이나면, 벤야민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현재가 진정으로 현재가 되려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는 과거 속으로 뛰어 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pounce of tiger의 어떤 그런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가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옛날에 낡아빠진 사실들을 새롭게 채취해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현재가 과거로 뛰어들려고 할 때는 뭔가 사냥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안에. 그죠? 사냥감이 이 안에. 그 사냥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가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 그 무엇을 바로 이 과거라고 하는 폐기된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catch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고양이가 여러 가지 그 쓰잘데기 없는 동물 중에서 쥐 한 마

리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게 지금 쥐는 뭘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고양이와 필요한 것이 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선으로 과거를 응시하고, 과거는 또 어떠하냐면, 과거는 - 이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앞부분에서 이미 많이 얘기된 것들인데 - 과거는 항상 현재에 대해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죠. 마치 우리 과거 기억 속에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분명히 살아있으면서 우리에게 늘 말을 걸고 있는 어떤 과거 사실들이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과거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고통, 아니면 과거에 억울하게 바로 그 폐기됐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의 실현되지 못한 꿈, 이런 것들이 벤야민의 시선에 의하면 그게 과거사실로서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들이 끊임없이 바로 현재를 향해서 다시 실현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얘길 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것처럼 과거는 동시에 현재에게 끊임없이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는 어떠한 과거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과거는 현재에게 바로 어떠한 것을 요청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바로 과거 속에서 현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고, 이 두 개가, 두 개가 같이 벤야민 식으로 얘길 하면 서로, 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상호간에. 현재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 속으로 뛰어 들고, 지금 당장 현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엇을 찾아서 그 안으로 뛰어 들고, 과거는 현재 속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다.

즉 과거는 과거에 억울하게 해소되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현재 속으로 들어와서 풀려고 하고, 이 두 개가 바로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뭐냐 하면, 바로 역사기술의 시점이다. 역사를 construction하는 시점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특별한 그런 시점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time of now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time of now다. 역사가는 바로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만 다름 아닌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로베스피에르가 그렇게 했듯이 혁명의 시간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로베스피에르에게 고대 로마는 현재 시간에 의해서 충전된 과거였다, 즉 현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가 투사되고 있으므로 과거가 바로 충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니까? 더 이상 폐기된,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자면 로베스피에르 식으로 얘길 하게 되면 벤야민의 말을 좀 상수를 하게 되면 고대 로마는 굉장히 융성한 세계제국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대 로마 속에는 뭐냐면 그런 융성했던 세계제국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고대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되고자 했다면 바로 그 문제들이 사실은 해소됐어야 했었다, 이 얘기에요. 그러나 고대 로마는 말하자면 이런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바로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로마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되면 고대 로마는 로베스피에르에게 이중적 이에요. 하나는 바로 세계 제국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요람이면서, 동시에 실패한 요람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 고대 로마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 영역 안에 억울

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콜로세움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이 가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피지배계급들이 고대 로마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던가를 누구나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보시면 한번 가서 그 엄청난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지기도 하겠지마는 참담해지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걸 짓기 위해서 저 밑에 도대체 무엇이 깔려 있었을까, 콜로세움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엄청난 그런 광장에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혹은 영화로 보듯이, 바로 사자에게 사람이 잡아먹히고, 검투사들이 그 안에서 유희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바로 그 그런 엄청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고대 로마를 벤야민은 이중적 시선,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문화유산 속에 그러나 텅 비어있음.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혁명을 고대 로마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생각했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고대 로마를 재현하지만 그 고대 로마가 해결하지 못했던 혹은 고대 로마를 허구로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해소시키면서 재현한 거지요.

이게 바로 시간적 구조로 보면 그겁니다. 고대 로마에서 억울하게 죽은 검투사들, 예컨대 노예들이 현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다. 프랑스 혁명에게. 프랑스 혁명은 고대 로마를 응시하면서 이 현재라고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와 똑같이 허구적 모더니티의 상황인데, 지금 무엇을 고대 로마로부터 끌어 와야지만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 시장 자본주의에 이 모순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있고, 그 로마 속에서. 고대 로마 속에서는 바로 뭘니까? 바로 현재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만난다는 애깁니다.

이게 서로 둘이 만난다. 이게 바로, 만남의 순간이 역사를 기술하는 순간이고, 이 역사를 기술하는 순간이 바로 전대미문의- 삼분법적 시간 속에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대를 태어나게 만든다. 그게 뭐냐면 바로, the time of now다 그겁니다.

◆3교시: 벤야민과 역사철학(3)

▲ ‘모두’의 이중적 측면

그래서 여러분이 벤야민을 공부하시다보면 이 고대 로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젯거리예요, 사실은. 벤야민 이론과 소위 엔틱과의 관계, 고대 로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변증법적 도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이러한 시간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관계를 설명을 하고, 이게 변증법적이죠, 상호 간에 뛰어 들기, 그 관계이고. 그리고 고대 로마를 재현하는 거다. 프랑스 혁명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아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데 그 감각을 바로 ‘모두’에게서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모두’만큼 옛 것으로부터 새 것을 찾아내는 영역은 없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말하자면 모두에게는 역사적 의식이 없다, 순응적이다 그 감각이.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여러 문화 장치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특히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감수성과 세련된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벤야민이 얘기하듯이 전부 시장에 매몰되어 있죠. 그 놀라운 감각들이 정치적으로만 사용된다면 그건 굉장한 폭발력을 지니게 될 겁니다. 시장에 의해서 시장에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욕망의 그런 생산품들로 의해서 우리의 몸은 그것들로부터 유혹당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감각이 그러한 유혹이 없었다면 살아날 수 없었던 우리의 감각이 무지무지하게 살아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세련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예컨대, 특히 도시적 감각성 같은 것들이. 다만 그것이 벤야민이 얘기한 것처럼 뭘니까? 시장에 매몰되어있다. 그게 바로 모두예요. 딴 게 아니고, 벤야민이 말하는 바. 그 모두의 감각을 정치화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그건 놀라운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혁명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아마 뭐 절대로 뉴타운 따위에 속아가지고 국회의원 뽑고 그러진 않을 거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젠데요. 이게 시장 자본주의의 문제고.

▲ 변증법적 도약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무작정 적으로 비판하고 무작정 적으로 신자유주의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작정 적으로 긍정하려고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야말로 변증법적 시선이 필요해요. 그 안에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채로, 잠자는 채로 들어있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정치적인 정치적 에너지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바로 벤야민이 보려고 하는 것, 현대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려고 하는 것. 말하자면 내재적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비판의 어떤 도구를 외부에서 억지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있다, 안에. 그리고 어떤 상황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마다 개인적인 상황이 있고 가족적인 상황이 있고 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이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라면, 그래서 그 가능성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어쨌든 내가 살려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게 되면, 그리고 외부에, 외부로부터 전혀 도움이 없다면 행동은 단순해져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을 찾아야죠,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죽든지. 살려면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벤야민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으려면 안 찾아질 수가(없다) 반드시 찾으려면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보이게. 지금까지는 전혀 가능성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적으로만 생각되었던 어떤 것이, ‘아! 그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로 변화 될 수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변증법적 시선이에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모두’를 보고 있는 시선도 바로 그렇고. 사실은 모두로 상징되고 있는 어떤 현대성을 벤야민은 폭발시키려고 하지만, 모두 아닌 종교에서 뭘 얻어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바로 이중화 시킨다. 모두에서 얻어낸 바로 그 힘. 바로 나로 하여금 불가능성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어떠한 모두의 특성, 그 특성이 바로 모두를 역으로 치는 그런 힘이 된다.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몇 번씩 얘기해서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스에 이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웅이 그 싸우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받지요. 신탁을 박으니까 신탁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창을 찾아, 찾아서 다시 한 번 찔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찾아서 찌르니까 나왔어요. 이거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논리가 아니죠. 벤야민도 똑같은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은 적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뭐 여담이지만, 이번에 교수 신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문화 비평 칼럼을 쓰고 있는데, 거기 4.19잖아요? 4.19에 대해서 좀 써 달라, 문화 비평을 좀 써 달라 그래서 제가 썼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4.19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겼는데 하나는 시선이다. 그 시선이 뭐냐면 적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선이다.

또 하나는 분노다. 적을 알아보고 적에 대해서 정당한 분노를 터뜨렸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당한’ 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을 알아보는 시선이고, 우리는 지금 적을 알아보는 시선을 못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진짜 누가 적인지. 그리고 인생에 성공하려면 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런 거 같아요. 적이 모호하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제가 4.19에 대해서 무엇을 남겼나 이게 테마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두 개가 남았다. 하나는 4.19는 우리에게 적을 알아보는 시선을 남겨줬고, 그리고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알아 봤으면 그것을 정

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적들에 대해서 분노를 발산하는 그런 능력이었다. 그 두 개다. 그리고 그 4.19로부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이 시선과 분노를 잊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거기 비슷한 얘기지만 변증법적 도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 변증법적 도약의 목적 - 역사의 연속성을 끊기

그래서 15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the time of now 변증법적 도약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바로 첫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폭파시키는 데 있다. 역사의 연속성이라 하는 것이 벤야민이 바로 그 주 target으로 삼고 있는 시간관이라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진보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앞으로, 앞으로 진보적으로 나가서 유토피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대적 그런 진보의 믿음, 이것을 벤야민은 연속성.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끊임없이 흘러, 흘러 앞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혀 그 안에서 말하자면 실려 내려가게만 할 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어떤 시대적 흐름, 그걸 애길 하고 있어요.

그걸 역사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벤야민이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변증법적 도약이다 하는 이런 현재와 과거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담보해온 소위 continuity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데 있다. 중지시키는 데 있다. 역사를 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 역사는 이제 그만. 이런 역사는 이제 그만.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난 이래 역사를 형성한 이래 계속 내려 온 이 끊임없는 연속성의 흐름은 이제 그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중단시키자. to break하겠다는 거죠. 끊어내자, 그래서 벤야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맑스는 혁명이란 바로 역사의 기관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 기관차라는 게 당대의 기관차, 기차가 태어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폭발력을 지닌 어떤 운동으로 상징화되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 그 기차 태어났을 때. 우리 그래서 초창기의 영화를 보면 아시죠? 사람들은 기차가 클로즈업해서 오니까 다 어떻게 했다고 했답니까? 영화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전부 의자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기차에)치일까봐. 어쨌든 간에 영화의 일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영화가 기차만 찍은 영화도 있어요.

오죽 신기했으면, 기차가 달리고 그 철 구조물이 달리고 그러는 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그거만 그 몇 분짜리로 찍어가지고 뤼미에르 형제가 거 찍어가지고 상영하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서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맑스 시대에 기관라고, locomotive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 무엇도 견딜 수 없을만한 에너지를 가진

어떤 상징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맑스가 그런 메타포를 사용 한 거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관차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애길 했는데. 바로 벤야민은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애길 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관차가 아니라 바로 역사의 기관차에 브레이크 거는 일이다, 그걸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애길 했어요. 벤야민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까지 흘러 내려온 어떤 그런 역사를 어떤 방향 전환하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느리게 만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벤야민은 그 역사 그만하자. 중단하기. to break하기. 끊어 내기. 이게 사실은 여담으로 애길 하면, 아도르노하고 벤야민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아도르노는 역사를 중단 시키려고 하지 않고 역사를 방향 전환시키려고 그 래요.

이건 일종의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보수주의자들이, 전면적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뭐니까? 점진적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방향을 수정하려고 한다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도르노는 보수주의자였다면 벤야민은 그 자리 에서 아주 단호합니다. 그만 끊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연속성을 폭파 시키고자 하는 의식은 행동을 개시하려는 순간의 혁명적 계급 에게 고유하다. 사실 혁명적 계급에게, 프롤레타리아에게 이 근본적인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뭐냐면, ‘이제 그만’이라는 거예요, 벤야민이 볼 때는.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 이제 그만 두기다 이렇게 애기하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도 그랬다라고 애 길 해요. 바로 예를 들면서 1848년 7월 혁명도 그랬다. 7월 혁명 동안에 일어났던 하나의 돌발적 사건이 있었는데 투쟁의 첫날 밤 파리의 여러 곳에서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도 없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산발적으로 그러나 한꺼번에 똑같은 시간에 시계탑에 총격이 가 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아마 시의 아군에 힘입어 그의 통찰력을 획득했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의 어느 증인은 다음 과 같이 쓰고 있다. <누가 믿을 것인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든 시계탑 밑에 서 있었던 새로운 여호수아가 마치 시간이 못마땅하기라도 하듯이 시계 판에 총을 쏘아 시간을 정지시 켜다고 한다.> 여러분 성경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시죠? 시간을 멈춘 사람이죠, 그죠? 막 전 쟁하는데 바로 함락을 해야 하는데 밤이 오려고 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하죠 여호수아가, 해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하나면 해를 중천에 세워 놓았죠.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내게끔. 승리의 전쟁을 이끌어 가게끔. 그 예를 드는 건데,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 못마 땅한 것처럼 시계 판을 쏘서 시계 판을 정지시켰다, 라고 애기하죠. 벤야민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뭐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해 온 그것들, 그것을 정지시키는 게 혁명이 다. 시계 판에다가 총을 쏘는 것. 시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시계 판이 뭐 니까? 시계 판의 시계는 삼분법적 시간이에요. 과거 / 현재 /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거기다 총을 쏘가지고,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약속도 안했는데 한꺼번에 글로 총을 쏘가지고 그 걸 멈췄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애기하려는 게 뭐냐, 혁명이란

결국 바로 시계 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수는 일이다. 시간을 바꾸는 일이다, 완전히. 그 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전체, 즉 역사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로 폭파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 역사적 유물론자의 '현재'의 정의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역사적 유물론자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현재,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 현재 / 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는 항상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뭡니까? 항상 현재죠, 그죠? 이 지금 현재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재, 현재 그러는데 현재가 뭘까 라고 얘기하면서 역사적 유물론자에게 사적 유물론자에게 바로 그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로서의 현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길 하죠.

과도기라는 게 뭡니까? 과거를 지나서 현재로 흘러가고 있는 중간단계로서의 현재. 삼분법적 시간관이죠. 이 운명이 있죠. 현재의 운명은 뭡니까? 곧 어떻게 뭡니까? 과거가 되어버릴 운명.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의해서 밀려날 운명. 이게 바로 현재의 개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개념인데, 바로 그런 과도기로서의 현재가 아니다. 사적 유물론자에게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현재냐면 그것은 시간 - the time입니다.

the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the time.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 어떠한 것이, 그 속에 머물러 정지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게 바로 현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참 힘드시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을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것이 이 안에 고여서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과거로 흘러가려고 하지도 않고, 미래로 흘러가려고 하지도 않고, 시간 그 자체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채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길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현재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냥 슬쩍 지나가는 과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까닭은 이와 같은 현재의 개념에 의해서만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재가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현재가 the time of now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주의가, 히스토리즘이 과거의 영원한 이미지를 나타낸다면 역사 유물론자는 과거와의 일회적인 유일무이한 경험을 보여준다, 이렇게 봤죠.

유일무이. 말하자면 역사주의에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바로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이, 시간이 저장된 채로 그대로 머물러서 the time of now의 어떤 시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과거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바로 그러한 관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죠. 즉, 과거와 두 번 다시 반복 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어떤 경험이 가능해지는 시간이다.

◆4교시: 벤야민과 역사철학(4)

▲ 사적 유물론의 현재와 미래

다시 말하자면, 현재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과거화로 흘러가거나 미래를 대신하고 있는 어떤 시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가진 채 바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시간대다. 긴장관계를 갖는 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 다 설명 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지금 어떤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the time of now인가.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유물론자는 과거의 영원한 이미지 따위는 소위 역사주위가 얘기하고 있는 죽어버린 과거의 이미지 따위는, 역사주의라고 하는 창녀촌에서 <옛날 옛적>이라고 불리우는 창녀에게 정력이나 탕진하고 있는 그런 역사주의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바로 사적 유물론자는 자신의 힘을 스스로 제어하면서 역사의 지속성을 폭파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정력적인 남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유적으로 얘길 하고 있습니다.

즉 뭘니까?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현재까지 흘러내려 오고 있는, 그리고 이 현재를 또 그 시간대로 끌어들어서 무효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또한 그 역사적 시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면서 정지되면서 버티고 있는 어떤 시간이다. 에너지로 가득 찬 시간이다. 이것을 바로, 현재가 왜 벤야민에게 무력하냐 말이지, 현재는 이 삼분법적 시간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는 한 바로, 폐기될 운명을 견뎌낼 수는 없어요.

바로 다시 과거로 죽어버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현재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서 역사의 거대한 홍수를 버티는 힘이 없이 계속 무력화 되가지고 흘러나가고, 흘러나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 없이 많이 있어온 현재들의 운명이었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 한 순간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고, 그 뻔한 어떤 과거라고 하는 어떤 로직 속으로 끌려들어가서는 안 되는 어떤 귀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벤야민식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되어 온 여러 가지 일들과 작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시간이 지금 여기인데, 이 현재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현재 시간들을 어떻게 써왔는가, 한 번 반추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 볼 수 있죠. ‘우린 정말 현재라는 시간을 정말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이 과거가 되어버리는 그 시점이 하나도 안타깝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우리가 현재를 왜 그렇게 여유롭게 과거로 그냥 흘러 보냅니까? 꼭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 대신? 왜냐면 현재는 뭘니까?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어떤 것 이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뭐든지 사람이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으세요? 믿는 거 없으세요? 미래를 믿죠, 미래를 그죠? 현재는

끊임없이 또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내 은행으로 매일 하루에 천만 원씩 들어온다, 그럼 나는 하루에 백만원씩 쓰면서 아무 걱정도 안 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돈에 워낙 민감하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미래라고 있는 게.

사실 벤야민의 모든 역사 철학은 미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래가 있는 한 끊임없이 연기되거든요, 변화는. 내일 하지 뭐, 또 내일 하지, 내일 또 내일. 뭐 이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죠? 내일, 내일. 근데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미래라는 게 정말 있냐 하는 겁니다. 정말 있냐 이거예요. 미래라는 게. 이 시간 운동성으로 보게 되면, 미래는 허구다. 도달할 수도 없고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팬텀으로서만 있는 목적으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그 실질적인 기능은 뭐죠? 현재를 어떡하는 겁니까? 낭비하게. 현재를 끊임없이 폐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어쨌면 ‘아 속았네!’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구나, 그걸 못 견뎌서 그 다음엔 뭘니까, 인간은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미래를 만들죠, 그게 뭘니까? 사후세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벤야민은 바로 그러한 시간, 이 맹목적인 그 낭비, 자기 낭비의 이 시간을 역사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의 시간, 벤야민이 얘기하는 건 그만 하자! 이 얘기예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예요. 그만 하자.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구요. 그러면서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창녀 품에 안겨가지고 옛날, 옛날 노래나 부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삼분법적 시간 속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그런 모습이라면, 바로 더 이상 이러한 현재를 바로 미래라고 하는 그런 거짓 속에서 과거로 스스로 폐기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력적인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바로 다른 아닌 사적 유물론자다. 그는 전혀 다른 현재라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유물론적 역사서술

그래서 우리 이제 17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독일 비극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대단히 힘든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읽어보지요. ‘역사주의가 보편적 세계사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그들이, 이 역사주의적 시간관이 승리를 계속 해 온 건 당연했다 이렇게 얘길 해요.

‘유물론적 역사 서술 방법론적으로’ 이 방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길 하고 있는데 ‘어떠한 다른 종류의 역사 보다 바로 이러한 보편사와 비교해 볼 때 아마 가장 정확하게 차이가 뭔지가 나타날 것이다. 보편적 세계사, 지금까지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론적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하다. 보편사의 방법론은 첨가적이다. 그것은’ 또 나와요. ‘그것은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의 더미를 그저 모으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물론적 역사서술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의 구성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한 구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 바로 프린스펠 컨스트럭션이 있다. 이게 바로 벤야민이 역사를 보고자 하는 컨피굴레이션이라고 하는 서술 방식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밌는 말은, ‘소위 사고에는 생각의 흐름만이 아니라 생각의 정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생각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흐르죠. 여러분들 생각을 멈추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멈추실 수 있으세요? 아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멈춰지는 겁니까? 천만에.

나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생각은 바로 끊임없이 시간입니다. 흘러나오는.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삼분법적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지를 한 번 반추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문학에 보면 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경향이 20세기 초에 나온 거 아시죠? 버지니아 Woolf나 제임스조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시간의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 현재로,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바, 진보적 시간관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거꾸로 흐르고, 제멋대로 흐르게 되더라. 이걸 발견해냈어요 문학, 소설 쓰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벤야민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한 특별한 본능이 있다, 무슨 본능이냐?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을 멈추고 싶은 욕망이 있다.

벤야민이 그 얘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당연히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게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벤야민의 논리에 의하면 그게 원래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뭘니까? 시간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우리의 사유 자체가. 사실 시간이 먼접니까, 우리 사유가 먼접니까? 시간이라는 게 뭘니까? 사유의 프로덕션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뭘니까? 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져서 뭘지 알 수 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뭘니까? 이런 게 시간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사유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됐죠? 만들어 놓은 그 시간에 의해서 계속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 이게 자연이야.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원래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그리고 만일 어떤 변화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이 생각을 통해가지고 아무리 변화를 추구해도 변화가 가능 합니까? 안 합니까? 되게 어려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실제 현실이 바뀐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거나 많은 그런 정신 분석가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거라면 생각이 바뀌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면 생각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생각이 움직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가면은 세뇌, 세뇌 그러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씻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은 새로운 걸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흐르게 생긴 걸 어떻게? 내가 딴 생각해야지, 해도 그 흐름을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이걸 마치 파란 물을 연못에다 풀어놓고, 그 안에다 사람들을 다 집어 놓고 나는 하얗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뭘니까? 사실은 파란 거예요.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벤야민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 하려는 게 바로, 유물론적 역사서술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바로 이 생각의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정지를 시키려면 어떤 생각에 어떠한 shock이 필요하다. shock이 필요하다. 그 shock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벤야민은 바로 construction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즉, 우리 생각을 생각하기에 shock을 줘가지고 우리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 하거나 중단시키려고 하게 되면, 새로운 뭘니까? 생각의 놀라운 전대미문의 지금 까지 있어보지 못한 다른 방식의 생각의 방법론이 제공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철학적 그 논지예요. 여기에 보면 <독일 에드극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방법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벤야민의 텍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텍스트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사유', 벤야민이 자기가 사유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예컨대 데카르트가 사유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좌-악 얘기한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벤야민도 바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 상세하게 나눠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모나드라고 하는, 모나드는 라이프니치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바로 이 개념을 통해가지고 이 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생각을 중단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방법, 어떤 사유하는 방식의 shock이 필요한데 그 shock을 어떻게 구성해 낼 것이냐 할 때 사유 방법론이 나오는데 사유 방법론의 이름을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말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일단 좀 쉽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왜냐하면 할 게 지금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가면 다 상세하게 방법론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 벤야민 역사철학 - 인식론적 방법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벤야민이 역사적 시간을 중단시키는 것과 그리고 역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유를 중단 시키는 것, 이게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벤야민이 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 철학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들어가야 돼요. 바로 말하자면 사적 유물론적 시간 론의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인식론적 입장입니다. 인식론적. 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인식론적 방법으

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우리 355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적 유물론자는 동질적이고 공허한 역사의 진행 과정을 폭파시켜서 그로부터 하나의 특정한 시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과거를 인지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시대로부터 하나의 특정한 삶을...’ 이렇게 쪽 나가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역사적으로 파악되어진 것의 영양이 풍부한 열매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을 그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벤야민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와 과거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런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어떠한 시점인 the time of now라고 하는 것과, 더 이상 과거로 폐기되기를, 폐기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그리고 미래의 대용물이 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재의 개념, 이것을 바로 벤야민은 이때 이러한 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그 때 들어가 있는, 그 안에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단히 영양이 풍부한 열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귀중하지만 맛은 없다.’ taste는 없다.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이다. <시간의 씨앗>이다 그거죠. 왜 시간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귀중하지만 맛이 없다’고 얘기했을 까요?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맛은 없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두 언어가, 이 형용사가? 시간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의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건도 완전히 객관적 의미에서의 시간의 에너지로서의 그 시간,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우 귀중하지만 그러나 맛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맛’이라는 것이 여기서 왜 나오니까? taste는 없다. 절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맛이라고 건 뭐지요? 주관적인 사항이거든요. 주관적인 사항.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기존 적으로 어떠한 내용물이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무색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 그죠?

그리고 불교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예가될 진 모르겠습니다마는, 空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공은 色 의 반대죠, 그죠? 색과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색의 반텐데, 바로 색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면 그 색은 뭐니까? 결국은 그 空 속에 뭐가, 내용물이 담기면, 있으면 色 으로 이제 보여 지는 거라면 아무런 내용물도 없는, 텅 비어있는 아무런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그냥 완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객관적인 그런 텅 빈 상태로서의 어떤 시간. 그래서 그거를 시간의 씨앗이라고 부르죠.

씨앗은 뭐죠? 아직 꽃으로 사건화 되지 않은 상태예요. 씨앗은. 꽃으로 사건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객관적인 시간. 그 시간이 고여 있는 특별한 시점. 이게 바로 현재이고, 벤야민에게는. 그리고 그 것이 바로 the time of now다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끊임없이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가짜 사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의미화 되고 가치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포장되어진 이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나게 되면 뭐니까?

엠포티차이트, absolutely 엠포티차이트. 텅 비어있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마치 처음 태어난 아이가, 처음, 신생아처럼. 그래서 벤야민의 <베를린의 유년시절>보게 되면 바로 벤야민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글을 쓰면서, 글을 쓰는 그 유년의 기억을 하는 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음을 멈추듯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5교시: 벤야민과 역사철학(5)

▲ 인식론적 방법

그런 식으로 보면. 여기엔 아직 없으신 거 같은데 아이를 낳아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어쨌든 간에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애 둘 낳았는데 저는 다 가서 봤거든요. 의무야, 그게 아버지의 의무야.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교육도 받고, 숨 쉴 때 뒤에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다 교육받고 그러고 했는데. 근데 애 낳는 걸 봤어요.

아이가 딱 자궁이 벌어지려고 하면 미처 안 보이는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일단 머리가 웬만큼만 나오면, 어 조금 더 나왔는데? 그러면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무지 빨라요, 진짜. 후다닥 해가지고 나와 있어. 어, 그거 굉장히 놀라워요 진짜. 그러니까 뭐 차츰차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애를 쓰다가 그냥 애를 쓰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미 실현이야. 이미 나와 있어.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애가 어떻게 나왔나 - 딸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나, 내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애매모호해요. 제가 나오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눈 한 번 깜박했을 뿐인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생생해요. 뭐 우리 집사람은 죽을 거 같아, 어찌고저찌고 그 와중에도 의식을 잃는데 독일말로 나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알아들으라고, 이제 의사가 독일 사람이니까.

비명도 독일말로 하던데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나오자마자 콧 나오더라고요. 그건 놀랍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시간이라는 참 게 뭘까?’그런 생각을 제가 참 해본 적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정말 태어나자마자, 나오면 딱 쳐주면 딱 자지러지게 하는데 거 굉장히해요. 자지러지게,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 프로이트가 얘기할 때 그 출생 shock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거 같애, 내가 보기에. 자지러지게 우는데 딱 갖다 엄마한테 안겨주니까 금방 조용해져요. 그 시끄러움과 그 자지러짐과 그 고요함의 그 연관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지. 그 정막과 그 평안한 정막과 그리고 그 몸부림과 비명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러는지, 아주 그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남자들을 그걸 보고나서 어려움을 겪는다던데, 나는 아주 경이로웠어요.

물론 애는 뭐 도롱뇽 처럼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좌우지간 이게 안겨 놓으니까,

벤야민이 그걸 아는 거 같애. 내가 그걸 보면서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울음을 멈추고 잠들듯이 그렇게 글을 쓴다, 나는 지금.’ 그 시점이 바로 그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the now)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이 벤야민은 무엇을 쓰려고 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은유적으로 좀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 어떤 시간대 인지,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서도 그런 얘길 하고 있는 거죠. 그 때 바로 있는 것은 무어나 하면, 아주 pure한 아주 순수한, 아무 것도 때문 지 않은 금방 태어난 아이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empty함. 그런 의미에서 그냥 empty한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absolutely, 절대적으로 공허한 그 시간, 그걸 바로 시간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의 씨앗이 바로 이 시간대에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뭡니까? the time of now이고, 그게 바로 역사를 reconstruction하는 시간이고, 순간이고, 그 순간이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시간이 일시에 중단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맑스가 원했던 혁명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길 하고 있죠. 그게 그리고 역사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을 때, 벤야민이 도대체 history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 the time of now

그래서 북2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 시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그, 18번은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구요. 그리고 이 시간이 말하자면, 이 absolutely empty한 그런 그 time, 이 순간이 바로 ‘메시아적 시간’이 있다면 그것의 모델이다, 그거죠. ‘메시아적 시간’이 뭡니까? 모든 것이 실현되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absolutely empty한 그런 time은 뭡니까? 씨앗으로서의 시간이에요. 무엇이 실현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벤야민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 시간이 얻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실현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 얘기죠. 왜? 메시아적 시간이 이 안에 들어설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그걸 못 들어서게 하고 있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벤야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이다, 메시아적 시간의.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메시아적 시간은 아니다. 그리고 역사가 해야 될 일은 메시아적 시간을 스스로 구성하는 데 있지 않다. 메시아적 시간이 들어올 수 있는, 뭡니까? 뭡니까? 바로 땅을 만들어 놓는 거다. 그 땅을 만들어 놓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라고 불러온 것들을 중지시키는 거다.

여기까지가 소위 역사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메시아가 들어서게 하는 것은 이미 영역 밖이다, 이거죠. 이게 벤야민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야민이 무엇을 역사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로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 시간을 스스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소위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끝내려고 하는 데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벤야민이 신학적으로 건너가지 않는 바로 그 한계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적 유물론자로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러나 뭘니까, 우리 처음에 난쟁이 하고 장기 두는 거 얘기했듯이 뭘니까, 바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끝내려면 신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왜? 신학적인 그런 시간만이 전혀 새로운 시간이 무엇인가를 모델로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념으로서. 그 얘기에요. 그게 바로 맨 앞에서 얘기했던 ‘장기 두면 언제든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의미거든요. 바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355페이지 밑에 가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메시아적 시간의 단편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시간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텅 빈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 시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매 초 매 초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수많은 문들로 만들어진 시간이다, 이 시간은. 언제라도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b번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들에겐’ 여기서 그 유대인들 얘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미래를’ 유대인들에겐 특이하죠.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미래가 어떻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현재와 과거와의 관계만을 생각 하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우상금지인데, 우상금지의 법칙이죠, 그게.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혹은 이름 짓지 마라라고 그런 건데- 미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상상하지 않는다.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겐 미래가 없느냐? 아니나, 유대인들에겐 철저하게 미래 관에 있다. 뭐냐,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매 초 매 초 언제라도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었던 조그마한 문을 의미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가지고 결국 뭘니까? 벤야민이 하나의 아주 특별한 혁명적 시간대를 지금 구성을 해 내고 있는데 소위 the time of now라는 것 속에서 과거가, 뭘니까? 과거가 자기 요청을 가지고 현재 속으로 뛰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시다. 그죠? 뛰어들어 와요, 이 안으로.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과거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시간.

거기서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어떤 것을 catch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해소되지 않은 요청이 실현되는 시간 대이고 현재가 과거로부터 아주 귀중한 어떤 것을 끌고 들어와서 현재의 문제를 해소화시키는 시간이라면, 중복적으로 실현되는 시간이에요. 과거의 꿈과 현재의 꿈이. 동시적으로 실현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실현의 시간’이다.

만일 미래라고 하는 것이 실현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fulfill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결핍 없이 진짜 콘크리트하게 진짜 어떤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거라고 하면, 무슨 미래가

따로 필요 하나, 이게 바로 미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게 뭘니까? 하나예요. 응집되는 거죠.

concentration.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뭘니까? 벤야민이 the time of now라고 부르는 시간이에요. 벤야민이 이 시간이 바로 역사의 시간이고, 이 시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독일 에드극의 기원>에 들어가면 소위 <the Origin>이라는 말로 대응 되서 쓰입니다. 기원(基源)이다. 그래서 벤야민이 얘기하기를 origin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시작되었던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보게 되면, 유명한 말인데, 14장에 들어가게 되면 인용문을 붙여놨잖아요.

칼 크라우스라고 벤야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작가인데, 조금 앞선 작가인데, 이런 아포리즘들을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그 중에서 인용한 거예요. ‘근원은 목표이다’ 즉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이지 앞에 있지, 뒤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말하자면 벤야민이 이 말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 이게 거창한 프로젝트입니다. 시간을 새로 정립하려고 하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새로 시작하게 하려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the origin>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립하고, 그것이 뭘니까? 히스토리다. 그게 바로 역사다 그 얘기죠. 그 말이 바로 벤야민이 얘기하는 기원이란 무엇인가? 기원은 지금 일어난 일이 처음 일어났던 장소가 아니다.

즉 먼 옛날에 있는 태고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가 기원이다, 라고 했을 때 기원이라고 하는 말이 다름 아닌 the time of now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아주 터프하게 말하게 되면 천지창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자꾸만 얘기하지만 메시아의 시간하고는 구분이 된다. 메시아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메시아의 영역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지금까지 문이 닫혀서 못 들어왔다면 지금은 다 열려 있으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온 거나 마찬가지죠.

벤야민이 이렇게 얘길 합니다. 메시아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바로, 언제나 하루 늦게 온다고 하더라. 그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메시아는 모든 일이다 이루어지고 나서 늘 지각해. 하루 늦게 온다.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게 했죠, 그죠? (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그 신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멀리 보여주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죠? 이젠 뭘니까? 인간과 신 사이의 기독교 논리로 말하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죠.

그래서 벤야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길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텅 비어 놓지만 메시아를 만날 수 없어. 왜? 메시아는 늘 지각하거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벤야민의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벤야민이 나중에 피레네 산맥에서 약을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도 아마, 만약 우리가 소설을 쓴다면 그 아주 재밌는 소설의 꺼리인데, 벤야민의 그 마지막이 어땠을까? 벤야민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벤야민의 자살.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젠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벤야민의 텍스트 속에는 무한히 많은 자살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뭐니까? 텅 비어있는 시간을 만들어 낸다, 이게 아주 죽음의 시간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그 여기도 있지만, <생산자로서의 소설가> 맨 끝에 보면, 죽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시간을 만난다고 하더라, 그 시간은 마치 주마등처럼 옛날에 있었던 시간들이 전부 흘러간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벤야민이 죽을 때 만나는 시간을 무엇으로 상징했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역사철학자로 얘기하자면 다름 아닌 이 시간대(the time of now)이고, 바로 이 시간대가 그러나 벤야민에게 바로 메시아와 만나는 시간인가? 천만에 그렇지 않다. 못 만나는 시간이다. 바로 죽음은 언제나, 우리가 그 문장을 보게 되면 마침표가 있죠? “나는 죽었다.” 찍습니다. 마침표라고 해요.

- 여러분 서양에서 쓰고 있는 기호들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는 세미콜론(;)인데, 이거 묘하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 그죠? 놀라운 겁니다, 저게. 그래서 그 세미콜론, 사랑이 혹시 세미콜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난 것. - 근데 바로 이 마침표의 진정한 의미는 뭐니까? 이 문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죠? 끝났다는 거. 그런데 이 문장, “나는 죽었다.” 소설 속에 사망 선고들이 많이 나와요. 글쓰기에서. 그러나 마침표는 항상 어디 옵니까? 뒤에 옵니다. 뒤에. 먼저 오는 법이 없어요. 바로 그러한 시간의 어떤 죽음의 시간, 소위 그런 문학이라는 걸 보면 the end라고 하는 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the end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이 소위 묘사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언어화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마지막이라고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라고 쓰긴 썼는데 마지막이라고 썼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마지막이라고 쓰지, 아직 살았을 때만 마지막이라고 쓰잖아? 이 끊임없는 연기. 끊임없는 미루기.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죽음을 연기시키기, 이게 바로 글쓰기의 그런 문장 구조다.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듯이 벤야민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러나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아요. 왜냐면 메시아는 죽은 다음에 오는 거니까. 바로 그러한 관계에 관해서, 이 문제는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벤야민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결코 신학적으로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역사의 영역에 머무르려고 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역사가, 히스토리커, 역사가로서 갖고 있으려고 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 정리하는 말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참 이게 사실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니다, 이게. 그래서 이 텍스트를 아주 꼼꼼히 다시 한 번 점검해 들어가면 사실 또 할 말도 더 많이 많고, 여러 어디를 갖다 붙여가지고 언어철학 부분도 끌어다 놓고 뭐 다 끌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원인데 어쨌든 이 텍스트 하나 정도는 꼼꼼하게 읽으셔 가지고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다른 얘기들도 바로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자꾸 베리에션되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억지로 따라 오시느라고. 저도 이거 설명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지만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해요.

근데 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이란 걸 한 번 진짜 곰곰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온다는 거.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거. 지나가면 안 온다는 거.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점검도 해 봐야 돼, 지금 이런 얘길 듣고 있는 게 옳은 일인지, 지금 이 시간에 예컨대. (웃음)